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와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신효식* · 유난숙*¹⁾ · 정난희* · 허영선** · 이주희***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생활과학연구소* · 성덕고등학교** · 광주동명중학교***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ining and personality in adolescence

Shin, Hyoshick* · Yu, Nan Sook*¹⁾ · Jung, Lanhee* · Heo, Youngsun** · Lee, Joo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ongdeok high school** · Gwangju Dongmyung middle school****

Abstract

This study described the status of family dining and personality of adolescents, determined the differences in family dining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ining and personality in adolesce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inventory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 city and 1,259 data copies were used for analyses.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PC 18.0 program.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weekly family dining frequency, more than 7 times had the most number of responses(44.2%), followed by 1~2 times(20.8%), 3~4 times(18.1%), 5~6 times(12.9%). The average scores for *family dining perception* and *family dining attitudes* were 3.75 and 3.42 on a 5-Likert scale, respectively, which means moderately high. But, *family dining rules* was 2.80, which means moderate. *Agreeableness* was the highest(3.68) among the personality components followed by *Openness/intellect*(3.42), *Extraversion*(3.33), *Conscientiousness*(3.14), and *Emotional Stability*(3.05) out of 5-point Likert scale.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dining frequency, *family dining perception*, *family dining rules*, and *family dining attitudes* depending on the gender, school level, and the father's academic attainment. Third, *family dining frequency*, *family dining perception*, and *family dining attitud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sonality of adolescents after personal variables were consider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ining rules* and the personality. The outcomes indicate that family dining affects the personality of adolescents. School needs to offer quality programs with various teaching methods to enhance *family dining frequency*, *family dining perception*, and *family dining attitudes*.

1) 교신저자: Yu, Nan Soo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4, Fax: 0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Key words: 가족식사(family dining),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family dining perception), 가족식사 태도(family dining attitudes), 인성(personality), 청소년기(adolesc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 사물에 대한 태도, 생각, 행동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Kwon & Kim, 1998).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시간으로 요즘 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가족식사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은 단순히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밥 먹는 시간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 사랑과 유대를 나누고 가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창조적인 시간이다(Lee, 2014).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은 가족 간 유대를 나누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의미가 크다. 가족식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식으로 가족의 정체성, 가치관, 목표를 형성하고, 가족식사에서 이루어지는 예절, 형식, 문화 등을 통해 한 가족임을 공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Weinstein, 2005).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0)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53.93점으로 OECD 평균인 84.77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족’을 선택한 청소년이 가장 많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실제 가족과의 식사 횟수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서너 번 식사 같이하기’가 58.76%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8.32%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행복하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Cheon(2010)은 가족식사의 인식조사를 통해 가족식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따뜻하고 즐겁다’로 답한 학생이 68.5%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가족유형 모두 가족식사를 따뜻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식사는 자녀들의 인성특성(Kim, 2011; Lee & Cho, 2007), 삶의 만족도(Bae, Ok,

& Yang 2013; Jang, 2013), 사회성(Kim, 2014; Yoo, Kim, Lim, Choi, & Chae, 2011), 도덕성(Kim, 2014), 자녀의 학교적응(Lee, 2014)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정서적·사회적 특성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족식사 실태가 성별, 학교급, 부모학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지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성별의 경우 성인남녀별로 가족식사시간이 차이는 비율이 다른 반면(Cho et al., 2011),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라 가족식사 빈도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며(Lee, 2014),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가족식사 실태가 다르게 나타났다(Lee & Choi, 2013). 학교급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족식사 빈도가 높았으며(Lee, 2014; Lee & Cho, 2007), 부모 학력의 경우 부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식사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Yoo et al., 2013), 부모 학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Lee & Choi, 2013)도 있으며, Lee(2014)는 부모학력에 따라 가족식사 빈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와 모 학력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 학력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실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집단 따돌림, 폭행 등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는 국가적 차원에서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2015년 7. 21시행). 교육부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밥상머리교육 자료를 각급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2012b; 2012c). 그러므로 가족식사와 청소년의 인성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사고 및 고유한 행동양식을 의미하는(Kwon, 1996)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성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지속하는 감정적, 대인관계적, 경험적, 태도적, 동기부여적인 양식들(styles)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수십년간 인성

을 측정하는 도구를 고민해 왔다(MaCrae & John, 1992). 인성의 측정은 그 근본 가치가 행동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Five-Factor Model(FFM)이 인성특성을 측정하는 데 많이 쓰이는 용어적 체계모델로서 다섯 가지 요인(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으로 구성된다(Lee, 2015).

OECD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과 능력을 규정하는 핵심역량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사회에는 교과적인 기술 및 능력을 갖춘 지적역량과 함께 인성적인 요소를 갖춘 전인적 인간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교육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 중심교육과정에 포함된 기술·가정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식생활 관리 방안(성취기준 [9기가02-02], [9기가02-11] 관련), 가족 친화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성취기준 [9기가03-06] 관련), 가족 문화의 이해를 이해하고 세대 간 관계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방안 탐색(성취기준 [12기가01-06] 관련)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므로 가정교육을 통하여 가족식사의 중요성과 실천적 행위로 연결되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와 인성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 실태와 인성특성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특성의 차이,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족식사 지도 뿐 아니라 가정과수업을 통하여 가족식사의 중요성과 가족식사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인성특성 함양을 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 실태, 인성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 특성이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가족식사 실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1998년과 2009년 두 시점의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식사가 10여 년 동안 감소추세이지만 식사 장소는 여전히 가정이 1순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Lee, 2012).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2011)은 서울 지역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식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이라고 69.6%가 응답하였다. Cho(2007)의 중·고등학교 가족식사 연구와 Lee & Cho(200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Kwo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식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높게 나왔다(Kwon, Park, Lim, & Chyun, 2013). 그러므로, 가족식사는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식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ee & Cho(2007)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 동안 가족 식사를 한 횟수는 ‘매일 한 끼 이상(40.1%)’이 가장 많았고, ‘주 3-4회(20.8%)’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주 1-2회(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4회(22.9%)’, ‘매일 한 끼 이상(21.0%)’ 순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끼니는 응답의 비율을 종합한 결과, 저녁 식사가 가장 높았으며(중학생 89.1%, 고등학생 78.0%), 그 다음이 아침식사(중학생 39.5%, 고등학생 33.3%)로 나타났다. 이는 Kim(2014)과 Kim(2011)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가족식사 빈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Kim(2014)의 연구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은 보통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주말, 공휴일(45.7%)’, ‘주중에 평상(26.2%)’, ‘매일(25.5%)’로 나타났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머니(70.5%)’로 가장 높았고, ‘가족 모두(22.5%)’로 나타났다. Yoo 외(2011)는 가정 내에서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주당 평균 5.44

회이고, 함께 외식을 하는 경우 주당 1.06회로 나타났다.

Kim(2011)의 연구에서도 가족식사를 하는 날은 ‘주말, 공휴일(41.7%)이 가장 많았고, ‘주중(31.6%)’, ‘매일(19.1%)’, ‘특별한 가족모임(6.4%)’, ‘특별한 날을 정해서(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Kwon 외(201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가족식사 횟수로는 ‘매일 한 끼 이상(42.2%)’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19.9%)’, ‘주 5~6회(15.5%)’와 ‘주 3~4회(15.5%)’, ‘없음(7.3%)’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를 못하는 이유로는 ‘모일 시간이 없어서(73.3%)’가 가장 높았으며, 필요를 못 느껴서, 어색해서, 혼자 살아서 등의 응답은 매우 적어 가족들이 각자 바빠서 함께 모일 시간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Kim(2011)의 가족식사 참여도 연구에서도 가족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이 함께 모일 시간이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Lee와 Cho(2007)에서도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 동안 가족식사를 한 횟수는 ‘매일 한 끼 이상(40.1%)’이 가장 많았고, ‘주 3~4회(20.8%)’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주 1~2회(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4회(22.9%)’, ‘매일 한 끼 이상(21.0%)’ 순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끼니는 응답의 비율을 종합한 결과, 저녁 식사가 가장 높았으며(중학생 89.1%, 고등학생 78.0%), 그 다음이 아침식사(중학생 39.5%, 고등학생 33.3%)로 나타났다.

2. 가족식사가 자녀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Kim(2011)은 가족식사 횟수에 따라 인성특성의 하위 영역(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한 결과, 가족식사 횟수가 높을수록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인성특성의 하위 영역인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 등과 관련된 변수들에는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 학교적응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변수와 가족식사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Lee와 Cho(2007)는 가족식사의 횟수가 청소년기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식사를 자주 할수록 가족 간의 친밀감 증대 및 정신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Jang(2013)과 Kwon 외(2013)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이 가족식사횟수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많아져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Yoo 외(2011)는 가족식사활동 빈도와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성 하위영역(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함께 식사준비를 하는 것은 준법성에 영향을 미치며, 함께 외식을 하는 것은 신뢰성, 사교성, 준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4)은 밥상머리교육과 중학생의 사회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밥상머리 교육이 중학생의 사회성 전체는 물론 모든 하위영역 즉 안정성,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 지배성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지 않은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4)는 가족식사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주당 가족식사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파악정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침식사에 비해 저녁식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Lee & Choi(2013)는 가족식사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와와의 아침식사 횟수, 어머니와의 저녁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남학생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식사가 자녀들의 인성특성 함양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 학교적응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 지역의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임의 표집하였으며, 해당학교 교장과 교사, 학생들에게 조사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얻어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고등학생 1,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충분하게 응답한 55부를 제외한 1,25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 48.1%(606명), 여학생 51.9%(653명)이며, 학교급은 중학생 57.1%(717명), 고등학생 42.9%(539명), 부 학력은 대졸이 58.2%(693명)로 제일 많으며, 고졸 이하 28.3%(337명), 대학원 이상 7.5%(89명), 전문대졸 6.0%(7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 학력은 대졸이 51.6%(611명)로 제일 많으며, 고졸 이하 36.2%(429명), 전문대졸 6.4%(76명), 대학원 이상 5.8%(69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가족식사 특성 (가족식사 실태,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 규칙, 가족식사 태도) 25문항, 인성특성 30문항 등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부 학력, 모 학력 등 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나. 가족식사 특성

가족식사 특성 문항은 Kim(2011), Lee와 Cho(2007), Bae(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가족식사 실태 6문항,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4문항, 가족식사 규칙 7문항, 가족식사 태도 7문항 등 총 24문항이 이에 해당된다. 가족식사 실태를 묻는 문항에는 가족식사 정의, 지난 일주일간 가족식사 횟수, 평소 가족 아침식사 횟수, 평소 가족 저녁식사 횟수, 가족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가족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등이 있다.

Neumark-Sztainer와 동료들은 가족식사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가족식사 빈도 외에 가족식사 환경을 포함시켰다. 가족식사 환경에는 가족식사의 긍정적인 분위기, 가족식사의 우선성, 가족식사 규칙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Neumark-Sztainer, Larson, Fulkerson, Eisenberg, & Story, 2010).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은 가족식사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으로 가족식사 시간을 단지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즐겁다’, ‘가족식사가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다’, ‘식사시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가족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등 4문항이 포함되었다. 가족식사 규칙은 편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606 (48.1)
	Female	653 (51.9)
School level	Middle school	717 (57.1)
	High school	539 (42.9)
Academic attainment		
Father	High school and under	337 (28.3)
	College	72 (6.0)
	University	693 (58.2)
	Graduate and over	89 (7.5)
Mother	High school and under	429 (36.2)
	College	76 (6.4)
	University	611 (51.6)
	Graduate and over	69 (5.8)

식이나 정해진 식사장소와 관련된 규칙 등이 있는지를 말한다. 가족식사의 규칙 7문항에는 ‘싫어하는 음식이 있더라도 모두 먹어야 한다’, ‘식탁에서 예절이 중요하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것을 먹도록 허락이 된다*’, ‘식사를 식탁에서 먹지 않아도 된다*’, ‘식사를 하면서 TV시청을 한다’, ‘식사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한다’, ‘식사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한다’ 등이 있다. 가족식사 태도는 가족식사의 우선성에 대한 것으로 가족식사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가족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식사 태도 7문항에는 ‘우리 가족은 적어도 하루 한 끼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식사는 영양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가족식사 시간이 가족간의 유대를 가깝게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식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인간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가족식사를 통해 부모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식사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저녁 식탁에 함께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식사는 집에서 하는 것이 외식을 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이 .586 ~ .878로 분포하였으므로, 내적 일치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인성특성

인성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1995)이 California Q-set에서 이용된 Five-Factor Model(FFM)을 변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

한 Kwon(1996)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McCrae와 John(1992)은 인성특성을 외향성(Extraversion), 친근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Barrick과 Mount(1991)과 Norman(1963)은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 걱정, 자기연민, 긴장, 과민, 불안정 등을 포함하는 신경증(Neuroticism) 대신에 감정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Five-Factor Model(FFM)의 다섯가지 요인으로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 등 모두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들과 관계가 있으며, 친근성은 친절, 사회적 순응성, 복종성 대 적대감, 혹은 애정으로 표현되고, 성실성은 의지 혹은 성취를 위한 의지라고도 한다. 감정적 안정성은 정적인 감정, 안정성, 정서 등으로 인식되어지고, 개방성/지성은 지적인 것 혹은 문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다(Kwon, 1996).

모두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되며, 각 하위요인 당 6문항씩 총 30문항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인성특성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이 .661 ~ .786로 분포하였으므로, 내적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라.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교급, 부모의 학력을 선택하였다. 성별, 학교급은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성별의 경우 남학생=0, 여학생=1로 설정하고, 학교급의 경우 중학교=0, 고등학교=1로 설

Table 2. Reliabilities of the items

Measures	No. of items	Reliability
Family dining perception	4	.806
Family dining rules	7	.586
Family dining attitudes	7	.878
Personality	Extraversion	.661
	Agreeableness	.772
	Conscientiousness	.697
	Emotional Stability	.786
	Openness/Intellect	.774

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Bae, 2004; Kim, 2011; Kwon & Kim, 1998; Lee, 2015)에서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부모의 학력이 인성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성특성이 남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들(Bae, 2004; Kim, 2011; Kwon & Kim, 1998; Lee, 2015)이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 인성특성이 남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위요인 즉,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지성 별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Kwon과 Kim(1998)은 학교급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인성특성이 다른 지 알아본 결과 친근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 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감정적 안정성이 높고,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친근성, 개방성/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인성특성이 다른 지 하위요인별로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신뢰도, t-test, ANOVA,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징, 가족식사 실태(가족식사의

의미, 지난 일주일간 가족식사 횟수, 평소 가족 아침식사 횟수, 평소 가족 저녁식사 횟수, 가족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인성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를 위하여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족식사 특성(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 규칙, 가족식사의 의미)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ANOVA를 분석하였다.

셋째,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와 인성특성

가.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 실태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 실태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식사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 79.5%, ‘가족 구성원 중 두 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것’ 11.3%, ‘부모님 중 한

Table 3. Status of family dining

		N=1,259	
Items	Level	N	%
Perceived definition of 'Family dining'	Dining with all the family members living in the same home	992	79.5
	Dining with at least one parent	102	8.2
	Dining with two or more family members	141	11.3
	Dining with all the family members and the relatives	13	1.0
Family dining frequency	Never	49	3.9
	1~2 times a week	261	20.8
	3~4 times a week	227	18.1
	5~6 times a week	162	12.9
	More than once everyday	554	44.2
Family breakfast frequency	Never	626	50.1
	1~2 times a week	312	25.0
	3~4 times a week	94	7.5
	5~6 times a week	44	3.5
	7 times a week	174	13.9

Items	Level	N	%
Family dinner frequency	Never	256	20.4
	1~2 times a week	511	40.8
	3~4 times a week	197	15.7
	5~6 times a week	85	6.8
	7 times a week	204	16.3
Reason for no family breakfast	Different schedule for work or school	812	69.3
	Late wake-up	84	7.2
	Bad appetite in the morning	93	7.9
	No one to prepare breakfast	18	1.5
	Habit of no breakfast	70	6.0
	Others	94	8.0
Reason for no family dinner	Different time of getting back home	963	85.0
	Too tired	32	2.8
	No one to prepare dinner	17	1.5
	Habit of no dinner	16	1.4
	Others	105	9.3

명이라도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 8.2%, '친인척 등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1.0% 순으로, 대체로 가족식사는 함께하는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일주일간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함께 식사를 한 횟수는 '매일 한끼 이상'이 44.2%로 가장 많았고 '1~2회/주' 20.8%, '3~4회/주' 18.1%, '5~6회/주' 12.9%, '0회' 3.9%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온 가족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되는 지는 '거의 없다'가 50.1%로 제일 많았으며, '1~2회' 25.0%, '거의 매일 함께 한다' 13.9%, '3~4회/주' 7.5%, '5~6회/주' 3.5%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온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되는 지는 '1~2회/주'가 40.8%로 제일 많았으며, '거의 없다' 20.4%, '거의 매일 함께 한다'가 16.3%, '3~4회/주' 15.7%, '5~6회/주' 6.8%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아침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

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근 및 등교시간이 달라서'가 69.3%로 제일 많았으며, '기타' 8.0%,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7.9%, '늦잠을 자서' 7.2%, '계속 안 먹는 습관이 들어서'가 6.0%, '식사를 준비하고 챙길 사람이 없어서' 1.5%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저녁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퇴근 및 귀가시간이 달라서'가 85.0%로 제일 많았으며, '기타' 9.3%, '너무 피곤해서' 2.8%, '식사를 준비하고 챙길 사람이 없어서' 1.5%, '계속 안 먹는 습관이 들어서' 1.4% 순으로 나타났다.

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및 인성특성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및 인성특성을 알아본 결과 <Table 4>와 같다.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은 3.75, 가족식사 태도는 3.42로 다소 높았으며, 가족식사 규칙은 2.80으로 나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Family dining and Personality

Measures	Min.	Max.	M(SD)	
Family dining perception	1	5	3.75(.74)	
Family dining rules	1	5	2.80(.55)	
Family dining attitudes	1	5	3.42(.72)	
Personality	Extraversion	1	5	3.33(.56)
	Agreeableness	1	5	3.68(.61)
	Conscientiousness	1	5	3.14(.55)
	Emotional Stability	1	5	3.05(.71)
	Openness/Intellect	1	5	3.42(.63)

타났다(5점 리커트 척도). 인성특성의 하위요인 중 친근성이 3.68로 제일 높았으며, 개방성/지성은 3.42, 외향성은 3.33, 성실성은 3.14, 감정적 안정성은 3.05 순으로 나타났다.

2.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중·고등학생의 성별, 학교급, 부모학력에 따른 가족식사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t=-3.63, p<.001$)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다.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가족식사 빈도($t=7.30, p<.001$), 가족식사 규칙($t=2.68,$

$p<.01$)이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가족 식사 빈도가 높았고, 가족식사 규칙에 대한 점수도 높았다. 부모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가족식사 규칙($F=7.27, p<.001$)으로 대학원졸 이상인 가족식사 규칙 점수가 제일 높았으며, 고졸이하와 대졸은 그 다음으로 높았는데, 모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5. Mean Comparisons of Family Dining depending on Personal Variables

	Family dining frequency		Family dining perception		Family dining rules		Family dining attitudes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Boys	3.70 (1.30)	-.63	3.67 (.72)	-3.63***	2.83 (.51)	1.46	3.40 (.72)	-1.19
Girls	3.75 (1.33)		3.82 (.75)		2.78(.58)		3.45 (.72)	
School level								
Middle	3.96 (1.27)	7.30***	3.76 (.75)	.62	2.84 (.52)	2.68**	3.42 (.72)	-.14
High	3.42 (1.32)		3.73 (.73)		2.75 (.57)		3.42 (.72)	
Academic Attainment								
Father								
High school and under	3.70 (1.31)	(.50)	3.72 (.73)	(.59)	2.74a (.57)	(7.27)***	3.37 (.71)	(1.80)
College	3.90 (1.28)		3.71 (.80)		2.87ab (.50)		3.46 (.85)	
University	3.76 (1.32)		3.77 (.78)		2.80a (.53)		3.44 (.71)	
Graduate and over	3.72 (1.34)		3.81 (.77)		3.03b (.56)		3.57 (.79)	
Mother								
High school and under	3.68 (1.34)	(.46)	3.73 (.73)	(1.86)	2.77 (.57)	(2.38)	3.40 (.71)	(82)
College	3.75 (1.35)		3.66 (.81)		2.80 (.53)		3.46 (.82)	
University	3.77 (1.30)		3.76 (.75)		2.80 (.53)		3.43 (.73)	
Graduate and over	3.74 (1.27)		3.93 (.69)		2.96 (.63)		3.54 (.66)	

Note: a < b: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 $p<.05$, ** $p <.01$, *** $p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통제변수인 성별, 학교급, 부모 학력에 따라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 중 성별(남학생 0, 여학생 1), 학교급(중학생 0, 고등학생 1)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인성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 부 학력이었다. 성별의 경우 감정적 안정성만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 학력의 경우 감정적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인이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학년 및 모 학력의 경우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는 모두 .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967(외향성), 1.875(친근성), 1.998(성실성), 1.874(감정적 안정성), 1.871(개방성/지성)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 인식, 가족식사 태도가 인성특성에 영향력이 있으며, 가족식사시간 규칙은 영향력이 없었다. 가족식사 빈도는 감정적 안정성($\beta=.082, p<.05$)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식

사에 대한 인식은 외향성($\beta=.170, p<.001$), 친근성($\beta=.165, p<.001$), 성실성($\beta=.088, p<.05$), 감정적 안정성($\beta=.168, p<.001$)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가족식사 태도는 외향성($\beta=.158, p<.001$), 친근성($\beta=.208, p<.001$), 성실성($\beta=.225, p<.001$), 개방성/지성($\beta=.216,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가족식사특성의 인성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향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친근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가족식사 태도였고, 성실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가족식사 태도였고, 감정적 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개방성/지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가족식사 태도였다. 전체적으로 가족식사 태도가 인성특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 인식, 가족식사 태도가 인성특성에 영향력이 있으며, 가족식사시간 규칙은 영향력이 없었다.

Table 6. Influence of Family dining on Personality

Component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Openness/Intellec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s															
Gender	-.015	-.014	-.48	-.028	-.024	-.83	-.017	-.016	-.58	-.132	-.093**	-3.16	-.019	-.015	-.52
School level	-.038	-.034	-1.15	.066	.056	1.92	.001	.001	.02	-.050	-.035	-1.16	.008	.006	.21
Academic attainment															
Father	.056	.099**	2.85	.044	.074*	2.16	.081	.145***	4.17	.037	.051	1.42	.044	.069*	1.97
Mother	-.013	-.023	-.67	-.005	-.009	-.27	-.025	-.046	-1.33	-.004	-.006	-.16	.005	.008	.22
Independent variables															
Family dining frequency	-.002	-.005	-.15	-.024	-.053	-1.70	.000	.001	.03	.044	.082*	2.55	-.010	-.021	-.01
Family dining perception	.127	.170***	4.54	.130	.165***	4.45	.065	.088*	2.36	.160	.168***	4.38	.039	.046	1.21
Family dining rules	-.010	-.010	-.31	-.016	-.015	-.49	.054	.054	1.75	.064	.050	1.58	.037	.033	1.04
Family dining attitudes	.128	.158***	3.92	.176	.208***	5.22	.181	.225***	5.63	-.010	-.010	-.24	.198	.216***	5.31
N	1,121			1,129			1,116			1,122			1,129		
Constant	2.369			2.606			1.985			2.144			2.412		
R ² (adjusted)	.096(.090)			.114(.107)			.118(.112)			.058(.051)			.073(.066)		
F	14.78***			17.93***			18.50***			8.56***			10.98***		

Control variable, dummy; gender, male=0, female=1; school level, middle school=0, high school=1.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와 인성특성을 살펴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와 인성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이는 Kim(2011)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가족식사 빈도를 한 주일을 단위로 알아본 결과 매일 한끼 이상(44.2%)이 제일 많았으며, 1~2회(20.8%), 3~4회(18.1%), 5~6회(1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아침 또는 저녁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근 및 등교시간이 달라서(69.3%), 퇴근 및 귀가시간이 달라서(85.0%)라고 한 답변이 제일 많았다. 이는 가족식사 횟수로 ‘주 5~6회’, ‘매일 한끼 이상’ 순으로 나온 Kim(2011) 연구결과와 비슷한 반면, 가족식사를 일주일에 ‘1~2회 한다’, ‘매일 1끼 이상 한다’ 순으로 나타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un & Chung, 2011)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가족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모일 시간이 없다’가 가장 많이 나온 연구(Kim, 2011; Kwon et al., 2013)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가족식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가족구성원 간 활동 시간대 차이로 가족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은 3.75, 가족식사 태도는 3.42로 다소 높았으며, 가족식사 규칙은 2.80로 나타났다(5점 리커트 척도). 인성특성의 하위요인 중 친근성이 3.68로 제일 높았으며, 개방성/지성은 3.42, 외향성은 3.33, 성실성은 3.14, 감정적 안정성은 3.0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 규칙, 가족식사 태도는 성별, 학교급, 부 학력에 따라 달랐으며, 인성특성은 성별, 학교급, 부모 학력에 따라 달랐다. 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가족식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의적으로 더 많이 보인 연구결과(Lee & Cho, 2007)와 관련된다. 또한 가족식사가 부 학력과는 유의한 결과가 있었지만 모 학력과는 관련이 없는 연구(Yoo et al., 2011)결과와 관련되며, 이 연구에서는 부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식사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이 가족식사에 대한 변수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의 결과(Bae et al., 2013; Cho & Lee, 2007)를 지지한다.

셋째,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변수를 고려하여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 태도가 인성특성에 영향력이 있으며, 가족식사 규칙은 영향력이 없었다.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가족식사 태도가 인성특성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Yoon(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가족이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가족원들이 가족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Bae et al., 2013; Lee & Cho, 2007; Yoo et al., 2011)와 관련이 있다. 특히 가족식사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을 덜 느끼고, 화를 덜 내며 무기력증을 덜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et al., 2013; Lee & Cho, 2007). 또한 가족식사 횟수가 높을수록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 등 모든 인성특성이 높게 나타났으며(Kim, 2011), 여학생의 가족식사 빈도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관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Jang, 2013).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가족식사 태도가 청소년의 인성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성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식사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족식사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과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 실태를 보면 가족식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가족구성원 간 활동 시간대 차이로 가족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정과교육과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수업에서 가족 친화 문화의 필요성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2015개정 기술·가정교육과정 성취

기준 [9기가03-06], [9기가03-07] 관련)하는 수업을 할 때 개별 가족의 가족식사에 대한 개선 방안과 사회적·국가적 가족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중·고등학생들의 인성특성 중 감정적 안정성이 가장 낮게 나왔고 여학생의 감정적 안정성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성 중에서 감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성적 특성이 강조되는 여학생들의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가족식사 규칙이 인성형성에 영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식사 규칙 중에 편식이나 예절 교육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때 식사를 통한 인성지도 시 편식과 식사 예절교육이 강조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가족식사 규칙과 인성형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가족식사 인식과 태도가 인성특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가족식사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은 가족식사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중시하는 정도이고, 가족식사 태도는 가족식사를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할 때 가정교육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의 요구와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사 준비(2015개정 기술·가정교육과정 성취기준 [9기가02-02], [9기가02-11] 관련)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이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가정과 수업을 하기 위해 수업시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인성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 학력을 살펴볼 수 있었기에 미래의 아버지가 될 남학생의 식사지도를 위한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여섯째, 중다회귀 분석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설명력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가족식사의 인성특성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에 의미를 두고, 보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변수 개발이 요구된다. 가족식사가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가족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3가지 방향 즉,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직접 효과,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부모에게 미치는 직접 효과, 가족식사가 부모라는 매개자를 거쳐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매개적 효과로 살펴볼 수 있는데(Bae, 2014), 본 연구는 가족식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인성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때 부모의 매개적 효과도 함께 탐색한다면 보다 더 종합적인 접근과 함께 높은 설명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가족식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청소년의 인성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가정과수업을 통한 구체적인 인성 함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는 가족의 형태나 거주형태,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과 관련된다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이 어려웠던 점이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둘째, 가족식사 하위차원에 가족식사 규칙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있기 때문에 척도로서 사용하였지만, 가족식사 규칙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다소 낮은 바, 이 부분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Bae, H. B. (2014). *The effects of family meal education program on family meal environ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 sense of competence: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Bae, H. B., Ok, S. W., & Yang, K. S. (2013). The influence of family meal frequenc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4), 125-149.
- Bae, S. J. (2004).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ating habit and personality or scholastic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 1-26.
- Cheon, J. Y. (2010). *The study on eating habits of elementary school*

- students of various family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 Cho, H. K., Lee, S. M., Kim, O. S., Lee, K. Y., Lee, Y. S., & Han, Y. S.(2011). Family meal time and the related factor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1), 1-28.
- Cho, Y. J.(2007). Family meal and dietary quality: middle and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 Cho, Y. M., & Lee, S. (2007). Adolescents' self-efficacy according to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time and communication styles. *Journal of Human Ecology*, 17, 59-68.
- Jang, Y. S. (2013). *The associations of adherence to dietary guidelines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with family meal frequency among adolescents in Ans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 Kim, H. S.(2014).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arents attachment and family meal perception on smart phone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Kim, M. S. (2011). *The effect on dietary habits, personality and food neophobia by family meals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S. K. (2014). *The difference of junior high students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upon the education of the table mann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Kwon, E. J. (1996).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parent-adolescent and the adolescents' person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won, E. J., & Kim, Y. H. (1998). Parents-child communication and the adolescents' personality. *Journal of Human Ecology*, 47-63.
- Kwon, J. E., Park, H. J., Lim, H. S., & Chyun, J. H. (2013). The relationships of dietary behavior, food intake, and life satisfaction with family meal frequ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Food Culture*, 28(3), 272-281.
- Lee, H. A. (2014). Influence of family mealtime on the children's school adaptation: Using the data collected by parent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3), 103-116.
- Lee, H. A., & Choi, I. S. (2013). Influence of family mealtime and family functioning on early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3), 1-13.
- Lee, K. W., & Cho, Y. J. (2007).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wards family meals. *Journal of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7(5), 615-625.
- Lee, S. Y.(2015). *A study on eating habi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food neophobia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Lee, Y. M.(2012). *Analysis of changes in children's meal structure and traditional aspects of school lunch menu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cCrae, R. 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2), 175-215.
- Ministry of Education(2015).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 Neumark-Sztainer, D., Larson, N. I., Fulkerson, J. A., Eisenberg, M. E., & Story, M. (2010). Family meals and adolescents: what have we learned from project EAT(Eating Among Teens)? *Public Health and Nutrition*, 13(7), 1113-1121.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6), 574-583.
- Weinstein, M. (2005). *The surprising power of family meals. How eating together makes us smarter, stronger, healthier and happier*. Steerforth.
- Yoo, G. S., Kim, S. H., Lim, J. H., Choi, H. R., & Chae, H. H. (2011). Effects of the frequencies of family leisure and meals and family closenes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ociality.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3). 99-116.
- Yoon, Y. S.(2012). *The role of family routines and rituals in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erging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Yun, E. J., & Chung, H. Y. (2011).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f meals and nutrition knowledge in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40(9), 1244-1255.

교육과학기술부(2012a). 밥상머리교육-리플렛.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2b). 밥상머리교육-워크북.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2c). 밥상머리교육-학부모용 길라잡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와 인성특성을 살펴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지역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1,259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t 검정, ANOVA, scheffe 검정,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 빈도를 한 주일을 단위로 알아본 결과 매일 한끼 이상(44.2%)이 제일 많았으며, 1~2회(20.8%), 3~4회(18.1%), 5~6회(12.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 인식은 3.75, 가족식사 태도는 3.42로 다소 높았으며, 가족식사시간 규칙은 2.80으로 중간이었다(5점 리커트 척도). 인성특성의 하위요인 중 친근성이 3.68로 제일 높았으며, 개방성/지성은 3.42, 외향성은 3.33, 성실성은 3.14, 감정적 안정성은 3.0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특성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 인식, 가족식사시간 규칙, 가족식사 태도는 성별, 학교급, 부 학력에 따라 달랐다. 셋째,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 인식, 가족식사 태도가 인성특성에 영향력이 있으며, 가족식사시간 규칙은 영향력이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과수업을 통한 구체적인 인성 함양 방안을 모색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5월 11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7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1월 30일